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를 위한 오찬사

존경하는 판 반 카이 총리 각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총리 각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오늘 각하와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각하께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을 선두에서 이끌면서 국민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만남에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하의 높은 식견과 확고한 비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총리 각하,

베트남은 지난 17년 동안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빛나는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래 연평균 8% 가까운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근면하고 우수한 베트남 국민들과 이를 번영의 원동력으로 결집시킨 지도층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어서 베트남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부유한 국민', '부강한 국가', '공평하고 민주적인 문명사회'가 빠른 시일 안에 건설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도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 각하,

베트남 속담에 “친구간의 우정은 넓은 바다도 메운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해 온 우리 두 나라 관계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만 11만명이 넘는 양국 국민이 두 나라를 오가며 '바다를 메울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에도 못미쳤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총액도 3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은 베트남의 여섯번째 교역상대국이자 네번째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협력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교역과 투자,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신 각하와 베트남 정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ASEAN+한·중·일, 그리고 내년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ASEM과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판 반 카이 총리 각하의 건강과 베트남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 다 함께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